

완도 해조류센터 새 단장, 랜드마크로 부상

33m 계단폭포 시간당 50t 폭포수 형형색색 경관 조명 불거리 풍성

완도 해조류센터가 케스케이드(계단 폭포)를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완도군은 해조류센터 옥상 정원을 정비해 계단 폭포를 조성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치유의 쉼터로 제공하는 등 해조류센터를 소통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조류센터는 2014년과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주제관으로 활용하였으며, 평소에는 완도항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동안 계단식 옥상 정원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볼거리를 조성해 왔으나 기능이 떨어지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계단 폭포를 조성하게 됐다.

계단 폭포의 길이는 총 연장 33m, 9개의 계단으로 구성됐으며 1시간 당 약 50톤의

폭포수를 쏟아낸다.

계단에는 형형색색을 연출하는 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계단 상단 표면은 완도의 바다 풍경을 형상화한 아트워크를 설치하고 하단 부위는 모자이크 타일로 시각적인 단조로움을 보완했다. 또 하단 부위 집수정 상단에는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공식마스코트인 해초와 미초 조형물을 설치, 박람회 홍보와 시설물에 대한 친근감을 더했다.

케스케이드 안전 난간에는 2021완도해조류박람회가 국제 행사로 개최함을 알리기 위해 세계 60개국의 국기를 게양했다.

군 관계자는 "치유의 계단 폭포가 가동되면 해조류센터 원통형 경관조명과 광장 내부수조형물 조명이 어우러져 빛의 향연이 펼쳐지며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치유의 계단 폭포는 각종 안전시설과 동물 조형물 설치, 통수시험, 경관조명 연출 시연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지난 18일 정식 개장했다.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srb.co.kr



완도 해조류센터가 케스케이드(계단 폭포)를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에 조성된 맨드라미 꽃단지.

신안 작은섬 병풍도, 맨드라미 꽃대궐 차렸다

30종 80만본 심어 볼거리 제공

신안의 작은섬 병풍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맨드라미 꽃대궐이 조성돼 가을 관광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신안군은 증도면 병풍도 4만여㎡에 프레스토화이어 등 30종 80만본의 맨드라미를 심어 지난 8월 중순부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꽃단지는 마을 주민들이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주민들조차 찾지 않고 버려진 땅의 잡목 등을 제거하고, 수심 차의 돌을 들어낸 뒤 흙을 성토해 작은 기적을 이뤄냈다.

병풍도는 인구 300여명이 모여 사는 아

주 작은 섬이다.

주민들은 지난 18일 주민들과 향우회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맨드라미 마을축제'도 열었다.

병풍도 섬 맨드라미 마을축제는 신안군의 사계절 꽃피는 1004섬 공원과 사업과 연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궈낸 예술작품이다.

주민들은 맨드라미 꽃이 병풍도를 찾아 온 관광객들과 추석명절 때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추억을 담은 장소로, 또한 전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안=박기욱기자 pkw4803@srb.co.kr

해남군, 5년연속 황칠특화림 조성사업 선정

12억 확보 '황칠메카' 자리매김

해남군은 전남도 2020년 '지역특화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2억원을 확보, 관련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지역·품목별 선별과 집중을 통한 비교우위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지역 특화림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공모에 황칠특화림 조성사업이 선정돼 황칠 육성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군은 2019년 공모사업을 통해 35ha의 황칠특화림을 조성한데 이어 2020년에는 25.2ha가 증가된 60여ha 규모로 화산면 방축지구 등 13개 지구에 황칠 특화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 황칠특화림 조성사업은 3년생 이상 대묘 황칠나무 7만8천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황칠특화림 단지에는 황칠나무의 산업화를 대비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황칠나무를 식재, 관리하게 된다.

군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해남 황칠나무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관내 359ha, 56만4천본의 황칠을 식재하는 등

황칠나무 재배를 규모화 해 연중 공급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 해남 황칠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황칠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하고,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 등록도 추진 중에 있다.

황칠나무는 인삼 및 가시오가피와 같은 파나스(Panax) 계열의 상록활엽수로 나무 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체내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으로 산림 6차산업화의 선두 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진녹색의 잎이 밝고 진한 외관을 가진 해남황칠은 셀레늄, 타닌 등 2차대사산물과 비타민C, 칼슘 등의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황칠 본연의 향이 진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미래수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황칠을 지역 대표 브랜드를 가진 산림소득산업으로 육성해 해남이 황칠나무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박기욱기자 mdl181@srb.co.kr

나주시, 가족소통캠프 실시 호응

나주시는 지난 18-20일까지 드림스타트 대상 가족(18가구) 구성원 5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와 충북 단양 관광 등에서 가족소통캠프를 실시,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의 어느 멋진 가족 여행'을 주제로 이번 캠프는 평소 문화·체험 활동 기회가 적은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여행을 통한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다문화가정 7가구도 함께 참여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여행 코스는 첫째 날 용인 에버랜드, 둘째 날 충북 단양 온달축제, 고수동굴, 셋째 날 청주 청남대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각종 놀이기구를 타며 유쾌한 추억을 쌓았고, 타 지역 문화축제와 관광지,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됐던 청남대 등을 견학하며 견문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나주=황중환기자 h6450909@srb.co.kr

함평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인산인해

함평에서 열리고 있는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막한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지난 주말에만 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개막한지 불과 사흘 만에 누적 관광객 수 7만 명을 돌파했다. 선선한 가을 날씨도 한몫했지만 새롭게 치장한 대형 국화조형물과 핑크몰리 등 풍성한 볼거리도 관람객들 사이 벌써부터 입소문을 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향대전의 경우 함평축제 최초로 야간개방(매일 밤 9시까지)을 실시하면서 600여 점의 야간경관조형물과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 볼거리를 즐기려는 인파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함평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기획 작품과 다양한 부대작품들이 전시됐다. 함평=정창환기자 jch3857@srb.co.kr



목포 수산시설물 명칭 새로 바뀐다

목포시의 수산시설물 명칭이 변경돼 소비자들을 찾아갈 전망이다. 목포시는 지난 9월부터 수산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해 1·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당선작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수산관련 시설물 이름이 건립 당시 정부 지원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설의 목적과 특성을 담아내지 못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 수산시설물로는 광동3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와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등이다.

공모를 통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목포건어물갈집센터(시민 제안)로,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는 목포활어회플라자(심의위원회 제안)로 변경된다. 목포=백만성기자 mspark214@srb.co.kr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사랑방 부동산

MAP+ (맵플러스) OPEN

이젠 지도검색으로 내집마련 할지도!

- ▶ 아파트·오피스텔 매물 검색
- ▶ 초등학교 배정구역 확인
- ▶ 가격변동률 참고
- ▶ 중개사무소 위치
- ▶ 단지별 시세 리뷰 제공

광주 최초 동영상 서비스

아파트 분양정보 찾을 땐 사랑방

광주 최초! 단지 규모와 주변 환경 등 놓쳐서는 안될 주요 정보를 영상 리포트로 확인해 보세요.

국내 최초! 교통, 생활인프라, 교육환경을 360° 드론영상으로 생생하게 경험해보세요.

생생한 현장감! 모델하우스 방문 없이 가실부터 주방까지 집안 곳곳을 생동감 있게 경험해보세요.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취업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 모집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인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국비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안내

응시자격 발달장애인 구직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훈련직종 제조기술 및 서비스(1개월~6개월 과정)

교육특전 - 교육훈련비용 전액 무료(국비)
- 훈련교재 및 식사 무료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28만4천원 지급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입학안내

모집인원 00명

접수기간 수시 접수 접수방법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접수

전형방법 센터 자체 입학선발평가를 통해 훈련생 선발

선발평가 기초학식, 심리/직업평가, 의료평가 및 면접 등 실시

직업체험관 운영

이용대상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등

상담문의 ☎ 062)380-0600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7층 (광주도시공사 빌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